

광주·전남 조출생률 6명대 복귀...1월 출생아 1600명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광주 월 출생아가 4년 만에 700명을 넘어서고 전남도 6년 만에 900명을 회복했다. 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양 지역 나란히 6명대 올라섰다.

출산이 늘면서 전국 합계출산율은 1.0명에 육박했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결혼 건수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 출생아 수는 70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0명(14.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737명 이후 4년 만이다.

전남도 지난 1월 출생아 수 908명을 기록해 지난 2020년 3월 910명 이후 처음으로 900명대를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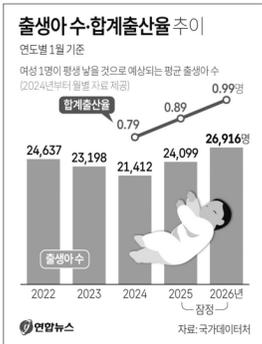
이에 따라 조출생률은 광주가 지난해

4년·6년만에 최대치 기록
결혼 건수도 128건 늘어
전국 합계출산율 1.0명 턱밑
30대 급증 저출생 완화 기대

1월 5.2명에서 6.0명, 전남이 5.6명에서 6.0명으로 각각 늘었다.

결혼건수도 광주가 548건, 전남이 772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건(6.6%), 94건(13.9%) 증가하면서 저출생 완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줄었다. 광주 전남 모두 작년 동월 대비 18.6%



줄며 각각 805명, 1802명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2만6916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817명

(11.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1월 기준 2019년(3만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가 지난해 12.5%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30대 인구 증가와 결혼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1월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증가했다.

2024년 1월 월별 합계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0대에서 증가 폭이 컸다. 30대 초반(30~34

세)이 90.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8.7명 늘었고, 30대 후반(35~39세)도 8.0명 증가한 65.8명을 기록했다.

20대 후반(25~29세)은 25.6명으로 1.5명 늘었고, 40세 이상도 0.3명 늘어난 5.1명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구성비는 첫째아가 63.5%로 1.4%p 늘었고, 둘째아·셋째아 이상은 각각 0.7%p씩 감소했다.

조출생률은 0.6명 늘어난 6.2명을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19년 1월 6.9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조출생률이 6명을 넘는 것도 2020년 1월 6.1명 이후 처음이다.

결혼도 지속해 증가하는 추세다. 1월 혼인 건수는 2만2640건으로 작년 동월보다 2489건(12.4%) 증가했다.

이는 1월 기준 2018년(2만4370건)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다.

1월 증가율은 1997년(동성동반 혼인 특례 이후) 이래 3번째로 높다.

지난 1월 사망자 수도 3만2454명으로 1년 전보다 6950명(17.6%) 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늘고 사망자 수는 줄면서 자연감소도 줄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지난 1월 5539명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1만5306명보다 크게 줄었다.

경기(1139명), 서울(329명), 세종(151명), 인천(44명) 4곳에서는 자연증가했다.

1월 혼인 건수는 290건(4.2%) 증가한 7208건으로 집계됐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협중앙회장 선거·지배구조 전면 손질

개혁위원회, 13개 과제 확정...독립이사·준법감시위 도입
조합장 출마 시 사퇴 의무화·퇴직자 재취업 제한 즉시 적용

농협개혁위원회가 중앙회장 선거제도부터 인사·지배구조, 경제사업 체계까지 전반을 손질하는 고강도 자체 개혁안을 내놴다. 조합장 출신의 중앙회장 출마 금지 '사퇴 의무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한 13개 과제를 확정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외부 전문가 참여로 출범한 위원회는 약 두 달간 논의를 거쳐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개혁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권고안은 최근 정부의 농협 대상

합동 감사와 관련 법안 발의 등 외부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농협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협동조합의 자율성 훼손 우려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해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조합장 50~1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조합장추천제'는 폐지해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여기에 후보자 토론화와 권역별 합동연설회 도입,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제재 강화 등도 포함해 금권선거 차단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중앙회장 선출 방식 개편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도입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맞서면서 권고안에는 부대의견 형태로 병기됐다.

인사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법농협 임원 선임 시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제를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중앙회 및 계열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기준은 권고안 채택 즉시 적용된다.

지배구조 개편도 병행된다. 독립이사제를 도입해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안건 상정권 부여와 활동 내용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법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사업 구조 역시 대대적인 재편 대상에 올랐다.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

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경제지주 지역본부는 단계적으로 폐쇄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다.

경제지주와 하나로유통 간 조직 통합을 통해 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한편, 산지 유통시설 디지털화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 구조 개선과 농가 소득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 간 합병을 유도해 사업 규모화를 추진하고, 경영진단 대상도 하위 30%까지 확대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기로 했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제가 처질 없이 이행될 경우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국회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까지 실행 로드맵과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상반기까지는 위원회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오늘부터...광주 99·전남 15 등 전국 1만7252가구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서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올해 모집 예정 물량은 청년 9112가구, 신혼·신생아 8140가구 등 총 1만7252가구로,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의 63%인 1만0923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사업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만204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2748가구, 인천도시공사(IH) 43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775가구, 기타 지방공사 1253가구 등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모집 시기를 기존 분기별 정기 모집 방식에서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한 수시모집 체계로 전환해 입주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한다.

3월 지역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청년	신혼·신생아I	신혼·신생아II	합계
광주	23	58	18	99
전남	7	8	-	15

제공=국토교통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I 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II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한다.

이번 모집 물량은 광주 99가구, 전남 15가구 등 전국 4443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인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에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정보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도심 내 주요 입지에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는 최근 광주지하철을 비롯한 광주지역 9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역본부, 취약계층 자립 지원

9개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채무상담·신용교육 등 연계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는 광주지하철을 비롯한 광주지역 9개 지역자활센터와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실업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채무조정)과 고용지원(자활근로)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활근로 참여자 가운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과 신용교육을 제공하고,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자활센터의 일자리 사업과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소의계층을 공동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과 '일자리 제공'을 결합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채무 부담을 덜어낸 대상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함으로써 다시 금융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채무조정을 넘어, 지역 내 자활 기관들과 협력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문 광주지하철 센터장은 "광주지역 9개 자활센터가 뜻을 모은 만큼, 더 많은 참여자가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와 협력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5600선 회복

삼천당계약 111만원 '황제주'

코스피는 25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며 56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41p(2.28%) 오른 5680.33으로 출발해 88.29p(1.59%) 오른 5642.21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 폭을 확대하며 장 중 5740.97까지 올랐지만 여전한 전쟁 불확실성에 오후세가 둔화해 5600선에 머물렀다. 지수를 지탱한 것은 기관의 매수세였다. 기관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212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3349억원, 1조2900억원 순매도했다. 다만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는 1조7260억원 매수 우위였다.

코스피는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상승 출발했다. 그러나 전쟁 양측 간 군사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전쟁 불확실성도 같이 커져 코스피의 상승 폭은 축소됐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5,642.21로 거래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이 영향에 원·달러 환율도 반등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상승한 1499.7원을 나타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8.11p(3.40%) 오른 1159.5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11.87p(1.06%) 오른 1133.31로 개장해 오름세를 기웠다.

시가총액 1위 삼천당계약은 19.12% 상승하며 11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종가 기준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가 등장한 것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